

현대차, 글로벌 혁신기지 '시동'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기공식 스카이 트랙 등 미래 기술 총집합 인간중심 밸류체인 혁신비전 주력



(왼쪽부터) 베 스완 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장,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대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고객을 중심으로 맞춤형 전기차와 UAM 등 스마트 모빌리티 생산과 신사업 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13일 남양연구소와 싱가포르 서부 주룡 지역 주룡 타운홀을 연결해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기공식을 개최했다.

HMGICS는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고객 자동차 생애 주기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개방형 혁신 기지(오픈이노베이션랩)다. 자동차 주부터 생산과 시승, 인도 및 서비스까지 모든 '가치 사슬'을 연구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임을 감안해 양국 행사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뿐 아니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 양국의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참여했다. 정부가 참여한 행사

가 실시간으로 가상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말 HMGICS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룡 혁신단지에서부터 4만4000㎡(1만3000평), 연면적 9만㎡(2만7000평)에 지상 7층 규모로 건설된다. 건물 옥상에서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길이 620m의 고객 시승용 '스카이 트랙'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이착륙장, 태양광 패널 등 미래 기술을 총집합한다.

현대차그룹은 3개 전략 방향성에 주력하며 HMGICS를 통한 인간 중심 밸류체인 혁신 비전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전략은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일의 가치와 근로자의 존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HMGICS는 인공지능(AI), IC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사람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된다.

고객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을 체계화해 지속가능한 자동차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는 목표도 있다. 고객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비전 달성에도 공헌한다. HMGICS는 태양광, 수소 등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 적용해 탄소 중립 달성, 자원 보호, 자원 순환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업계 최초 IDC DX 어워드 '대상'

총 10개 부문 중 3개 부문수상 DT플랫폼 확보... 업무생산성 혁신



SK하이닉스 인천 행복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디지털 전환(DT) 노력을 인정받았다. SK하이닉스는 'IDC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어워드 2020'에서 총 10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한국 수상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IDC DX 어워드는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뉴노멀 시대를 준비한 기업들을 수상사로 선정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대상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머' 부문을 반도체 업계 최초로 수상했다. '구성원의 행복을 향한 DT'를 비전으로 반도체 제조업에 맞는 DT플랫폼을 확보해 업무 생산성을 과격적으로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한 덕분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해 제조 장비의 막대한 정

보를 활용하는 의사 결정 모델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운영모델 마스터', '인재융합' 부문 등에서도 상을 받았다. 제조 클라우드를 구축해 첨단 기술과 유연한 인프라 환경을 구현하고, 실시간 대화형 협업 플랫폼인 큐브를 운영한 성과다.

IDC는 오는 20일 ID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밋을 베투얼로 개최하고 2020년 IDC 어워드 국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삼성전자, 인간공학 디자인상 수상 '쾌거'

부문 상관없이 가장 우수한 제품 그랑데 AI, 울인원 컨트롤로 작동 청정스테이션, 에어 펄스 기술 호평



삼성전자는 그랑데AI와 청정스테이션으로 인간공학디자인상 그랑프리와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와 '청정스테이션'이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최근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20년 인간공학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고상인 그랑프리에서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가, 최고혁신상 청정스테이션이 선정됐다.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사용 편리성 ▲효율성 ▲기능성 ▲감성품질 ▲안정성 ▲시장성

며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움직이는 제품이다. 세탁기 조작부에서 건조기까지 제어가 가능한 '울인원 컨트롤'로 누구나 직설 설치된 제품을 쉽게 작동할 수 있다. AI 코스 연동과 AI 습관 기억 등 편의 기능도 있다.

청정스테이션은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 전용 자동 먼지 배출 시스템으로, 먼지통을 분리해 청정스테이션에 꽂아주기만 하면 '에어 펄스' 기술로 내부 공기압 차를 이용해 먼지를 비워준다. 먼지통을 손으로 비울 때보다 먼지 날림이 기존 제품 대비 최대 400배나 적고, 0.5~4.2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 배출을 99.999% 차단하는 5중 청정 시스템을 갖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GS칼텍스 "드론, 바닷길 건너 생필품 배송"

GS칼텍스가 주유소를 거점으로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GS칼텍스는 13일 여수 장도에서 드론 및 로봇 배송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연 행사는 장도에 거주 중인 작가가 모바일 앱을 통해 GS25 편의점의 생필품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GS칼텍스 소호주유소에서 드론 제조업체 네온테크의 드론이 인근의 GS25 편의점 상품을 적재해 바닷길을 건너 0.9km 거리의 장도 잔디광장으로 날아갔고, 장도 잔디광장에 대기하고 있던 자율주행 전문업체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로봇이 상품을 이어받아 0.7km 거리의 장도 창작스튜디오로 이동해 배송을 완료했다.

GS칼텍스가 주유소를 드론 배송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향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여수 드론 로봇 배송 시연 행사

LG 코드제로 M9 씽큐 광고 1000만뷰 돌파

지난 '로봇 배틀'편 먼저 1000만뷰



'로봇 배틀'편 영상 장면. /LG전자

LG전자 물결레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M9 씽큐가 광고 영상으로도 높은 소비자 관심을 증명해냈다.

LG전자는 최근 출시한 M9 광고 영상이 잇따라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로봇 배틀'편이 먼저 1000만뷰를 넘었다. 지난달 23일 공개된지 20일만인 이달 초에다. 공간을 더럽히는 '더티 빌런'을 로봇청소기 M9와 R9이 힘을 합쳐 물리치는 내용이다. 먼지와 얼룩 제거, 음성인식과 장애물 회피 능력 등을 강조했다. e스포츠 박상현 캐스터와 김동준 해설가가 박진감 넘치는 중계로

재미를 극대화했다.

먼저 공개된 '클린 홈즈' 2편도 지난 달 4일 업로드 후 10일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은바 있다. 설록 홈즈와 모리아티가 난장판으로 만든 사무실을 R9과 M9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내용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와 영상미로 주목을 끌었다. /김재웅 기자

SK이노 협업 벤처, 인천 내트릭하우스 입점

'소무나' 수도권 시장 공략 첫발

트파트너링 모델 시즌2'에 선정된 4개 업체 중 한 곳이다.

SK이노베이션과 협업한 친환경 소셜벤처 소무나가 SK에너지 인천 내트릭하우스에 입점하며, 수도권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소셜벤처 소무나가 13일 SK에너지 인천 내트릭하우스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부터 주유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화물차휴게소인 내트릭하우스를 부산·광양·인천·평택 등 전국 21개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무나는 무(無)시동 냉장·냉동 트럭 전장시스템을 개발한 소셜벤처다. 올해 SK이노베이션이 실시한 'SV2 임팩

소무나는 이번 인천 내트릭하우스 입점으로 수도권 지역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수많은 화물 중개업체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모이는 SK에너지 내트릭하우스는 소무나의 미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내트릭하우스와 함께 전국적인 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SK에너지가 가진 전국적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을 보다 강화하게 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